

[서평] '백악관의 맨 앞줄에서'를 읽고

얼마전 헬렌 토마스라는 백악관 최장수 여기자의 회고록, '백악관의 맨 앞줄에서'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80세 현역기자로, 백악관 취재경력만 40여년이 됩니다.

케네디 시절부터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무려 8대에 걸친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더군요.

그중 기억에 남는 몇가지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 뉴 프론티어 정신의 기수, 존 F. 케네디

8명의 대통령 중 헬렌 토머스가 가장 좋아한다는 '케네디'.

그는 미국민에게 새로운 꿈과 정신을 불어 넣었고, 그것이 그당시의 젊은이들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클린턴도 전미 학생들을 대표해 케네디와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엔 달을 정복하겠다는 그의 계획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는 정작 인간이 달에 발자국을 남기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개척정신만큼은 뚜렷이 남겨놓고 갔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만들겠다는 '꿈을 주는 대통령'은 그 존재만으로

도 아릅답습니다.

▶ 퇴임한 대통령들의 활동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퇴임후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오스틴에 있는 존슨 도서관, 레이건 도서관 등이 그 예지요.

이는 교육과 미래를 중시하는 미국사회를 반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 않게(?) 보내는 카터는 부인과 함께 가난하거나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자원단체에서 가장 유명한 자원 봉사자입니다.

카터 센터는 전세계 분쟁지역에서의 갈등해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전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방역활동과 농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前 대통령들의 이름을 내건 도서관이나 봉사단체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 기부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을 모으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헬렌 토마스는 실망했으나 봅니다만, 25만 달러를 받고 링컨 침실을 하룻밤 사용하게 한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재치는 탄복할만 합니다.

투명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젠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이 뒤따라야겠지요.

▶ 마지막으로 헬렌 토마스에 대해

헬렌 토마스는 80세의 노령임에도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존재'라고 합니다.
아랍출신의 하이픈(hyphenates:외국계 미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미국내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선 '평범한 노력'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1908년 언론인들의 사교클럽으로 결성된 전국언론인클럽(National Press Club)은 여성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다가, 드디어 1971년 3월, 조심스런 개방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과 편집인들이 회원의 주축을 이루는 그리오디론 클럽(Griodiron Club) 에서도 90년의 전통을 깨고 첫 여성회원이 되었습니다.
백악관도 처음엔 여성기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꿈을 갖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라면서 그 꿈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포기되는 경우가 많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 높은 장벽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운 헬렌 토머스양에게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들께도 그녀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